

KAIST 이슬기씨 '최연소 박사'

25살에 학위 받아

“연구하는 재미에 밤낮없이 랩에 있었지만 최연소 박사라니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

지난 24일 열린 KAIST 학위수여식에서 스물다섯 나이에 최연소 박사 학위 타이틀을 거머쥐고 연구실적 또한 탁월해 유럽 최대 전자연구소에 입사하는 졸업생이 있어 화제다.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슬기 박사(사진)은 3월부터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위치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유럽 최대 전자연구소 IMEC-NL(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er)에서 일하게 돼 이달 말 출국할 예정이다.

1987년생인 이 박사는 서울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졸업하고 2004년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3년 만에 학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

해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박사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최첨단 나노전자기술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의 중심 연구기관인 IMEC에서 일하게 됐다.

이 연구소에는 저전력 생체신호 검출 및 처리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대거 모여있다. 이 박사는 “학부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야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기면서 연구했다니 뜻밖의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모석봉기자